

기술분석보고서 산업재

티엘엔지니어링 (413300)

- ▶ 요약
- ▶ 기업현황
- ▶ 시장동향
- ▶ 기술분석
- ▶ 재무분석
- ▶ 주요 변동사항 및 전망

작성기관 나이스평가정보(주) 작성자 류치선 연구원

[YouTube 요약 영상 보러가기](#)

- 본 보고서는 투자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용으로만 제공되는 것이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를 활용한 어떠한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본회와 작성기관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의 요약영상은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하며, 영상편집 일정에 따라 현재 시점에서 미공개 상태일 수 있습니다.
- 텔레그램에서 “한국IR협의회” 채널을 추가하시면 매주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작성기관(TEL.02-2124-682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티엘엔지니어링(413300)

클린룸에서 시작해 에너지를 되살리다

기업정보(2026.05.28 기준)

대표자	서충욱
설립일자	2002.12
상장일자	2022.09
기업규모	중소기업
업종분류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주요제품	클린룸 설계,시공

시세정보(2026.05.28 기준)

현재가(원)	1,946
액면가(원)	500
시가총액(억 원)	26.67
발행주식수	1,351,515
52주 최고가(원)	3,185
52주 최저가(원)	1,410
외국인지분율	-
주요주주	서충욱

■ 클린룸 기업에서 에너지 솔루션 기업으로 전환

티엘엔지니어링(이하 동사)은 2002년 설립 이후 약 24년간 반도체·바이오·제약 산업을 중심으로 HVAC(클린룸) 설계 및 시공 사업을 영위하며 엔지니어링 역량과 현장 기술력을 축적하여 왔다. 최근에는 기존 HVAC 기술 기반 위에 자체 개발 폐수열 회수 장치 '히트세이버'를 핵심 제품으로 하는 에너지 절감 사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클린룸 전문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통합 에너지 솔루션 기업으로의 사업 구조 전환을 본격화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자정 구조 히트세이버와 ESCO 모델로 구현되는 절감 경쟁력

동사의 핵심 경쟁력은 독자 개발한 다단 폐수열 회수기 '히트세이버'에 집약되어 있다. 기존 셀엔튜브형 및 관형 열교환기의 구조적 한계인 슬러지 막힘과 빈번한 세척 문제를 사이펀 현상을 활용한 자정 구조로 해결하였으며, 국내 유일 로봇 용접기 활용으로 내구성과 열교환 효율을 동시에 확보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KT와 협력한 ESCO(Energy Service Company) 방식의 선투자·절감비 분담 사업 모델을 병행 추진하고 있어, 고객의 초기 투자 부담 없이 에너지 절감 효과를 창출하는 구조적 차별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전방 산업 성장과 탄소중립 수혜로 복합 성장

반도체·바이오 산업의 클린룸 신규 수요 증가라는 전방 산업의 성장 흐름과, 에너지 비용 절감 및 탄소배출 저감을 동시에 요구하는 정책 환경 변화라는 두 가지 성장 동인을 모두 수혜 받을 수 있는 사업 구조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스마트팜 열관리 시스템 및 AI 데이터센터 냉각 분야 등 신규 응용 시장으로의 확장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중장기 성장 모멘텀이 확보되어 가는 것으로 전망된다.

요약 투자지표 (K-GAAP 개별 기준)

	매출액 (억 원)	증감 (%)	영업이익 (억 원)	이익률 (%)	순이익 (억 원)	이익률 (%)	ROE (%)	ROA (%)	부채비율 (%)	EPS (원)	BPS (원)	PER (배)	PBR (배)
2023	101.2	-4.83	-6.0	-5.94	-6.4	-6.36	-56.50	-9.18	515.71	-460	814	N/A	2.42
2024	136.6	34.95	-4.4	-3.20	-4.5	-3.27	-38.66	-6.48	496.32	-319	825	N/A	2.39
2025	104.6	-23.38	1.2	1.12	0.8	0.80	6.10	1.10	452.19	60	986	32.88	2.00

기업경쟁력

클린룸 통합 수행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2년 설립 이래 24년간 반도체·바이오·제약·전자·식음료(F&B) 분야 클린룸 설계·시공 실적 축적 - 2020년 설비분야 엔지니어링 사업자 면허 취득으로 설계→조달→시공→유지관리 일괄 수행 체계 구축 - 공기흐름 시뮬레이션(Air Flow Simulation) 기반 최적 설계 역량 및 TAB(Testing, Adjusting, Balancing) 수행 역량 보유
히트세이버 독자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이펀 원리를 활용한 자정 구조로 여과장치 불필요, 장기 운전 안정성 확보 - 국내 유일 로봇 용접기 적용으로 내구성 및 전열 면적 확대, 실증 기준 약 80% 열 회수 성능 - KT와 협력한 ESCO 방식(선투자·절감비 분담) 사업 모델로 고객 초기 투자 부담 최소화

핵심 기술 및 적용제품

다단 폐수열 회수기 히트세이버	<p>사이펀 자정 구조와 이중 열 회수 설계를 적용하여 슬러지 막힘 없이 약 80% 열 회수 성능을 구현한 폐수열 회수 장치</p>	<p style="text-align: center;"><히트 세이버></p> <p style="text-align: center;">열 회수 시스템</p>
하이브리드 클린 컨테이너(HCC)	<p>미세먼지 안심존, 음압격리실, 바이러스 안심존 3가지 모드를 단일 컨테이너에서 버튼 조작으로 구현 가능한 클린룸 공조 기술 기반 모듈형 제품으로, 2022년 조달청 혁신제품 선정</p>	<p style="text-align: center;"><Hybrid Clean Container(HCC)></p>

시장경쟁력

반도체·바이오 클린룸 수요 확대	<p>글로벌 클린룸 기술 시장은 2023년 52억 달러 규모로, 2032년까지 CAGR 약 7% 성장이 전망되며 (Polaris Market Research), 반도체·바이오 전방 산업 성장에 따른 국내 클린룸 신규 발주 증가 수혜가 기대됨</p>
폐열 회수 시장의 구조적 성장	<p>글로벌 폐열 회수 시장은 2025년 약 746억 달러 규모로, 2032년까지 CAGR 약 8% 성장이 전망되며 (Kings Research, 2025), 탄소중립 정책 및 에너지 비용 상승이 시장 확대 주요 동인으로 작용 중</p>
ESCO·스마트팜·데이터센터 로의 응용 확장성	<p>KT와의 ESCO 협력 사업 모델 구축 및 스마트팜 열관리·AI 데이터센터 냉각 분야 진출 추진으로, 단일 제품 판매를 넘어 통합 에너지 솔루션 플랫폼으로의 시장 확장 기반 마련</p>

I. 기업 현황

클린룸 역량 위에 쌓아 올린 에너지 회수 플랫폼 기업

동사는 24년간의 산업용 HVAC 엔지니어링 경험과 독자 폐수열 회수 기술을 결합하여, 수영장·스포츠센터에서 반도체 공장·스마트팜·데이터센터에 이르는 다양한 산업 현장에 에너지 비용 절감과 탄소 배출 저감을 동시에 달성하는 통합 에너지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 기업 개요 및 주요 연혁

동사는 2002년 설립되어 반도체·바이오·제약 분야 클린룸 설계 및 시공 중심으로 사업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싱가포르 국방성(DSO) 차폐 연구실 수주, 미국 CDC 인증 BSL 3+ 시설 시공 등 국내외 고난도 프로젝트를 통해 기술력을 검증해 왔다.

이후 2020년 사명 변경과 함께 엔지니어링 사업자 면허를 취득하여 설계부터 시공·유지관리까지 일괄 수행 역량을 공식화하였으며, 2022년 코넥스 상장을 통해 자본시장과의 접점을 마련하였다.

최근에는 자체 개발한 폐수열 회수 장치 '히트세이버' 중심의 에너지 절감 사업으로 사업 구조를 전환하며 스마트팜·데이터센터 등 신규 응용 분야로 확장을 가속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2025년에는 코넥스 시장 공시우수법인으로 선정되고 2026년 장영실상 에너지혁신 부문을 수상하는 등, 기업 투명성과 기술 우수성을 외부에서도 인정받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림 1. 주요 연혁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5.12.),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 대표이사 주요 이력

대표이사 서충옥은 경희대학교 환경공학과 학사 및 석사를 졸업하고, 글로벌 클린룸 엔지니어링 전문기업인 독일계 M+W Zander Korea에서 약 6년간 실무 경험을 쌓은 뒤 2002년 동사를 설립한 것으로 확인된다.

1994년부터 LG디스플레이 근무를 시작으로 반도체·디스플레이·클린룸 분야에서 쌓은 30여 년의 현장 전문성은, 동사가 고난도 산업용 HVAC 프로젝트를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에너지 절감 신사업을 주도적으로 개척하는 원동력으로 평가된다.

특히 2009년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해외건설전문가과정을 수료하며 글로벌 시장에 대한 안목도 강화하였으며, 설립 이후 24년간 경영 일선을 이끌며 클린룸 기술 기업에서 에너지 솔루션 기업으로의 전략적 사업 전환을 직접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티엘엔지니어링(413300)

■ 주주 현황

최대주주인 서충욱 대표이사는 보통주 632,000주를 보유하여 보통주 의결권 기준 46.7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수관계인 7인을 포함한 합산 지분은 보통주 의결권 기준 약 80.19%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율이 80%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어 지배구조의 안정성이 높게 평가되며, 이는 장기적 관점에서 일관된 경영 전략 추진의 기반이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 주주 현황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5.12.),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2026.04.),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 사업 부문

[에너지 절감 사업]

동사의 에너지 절감 사업은 24년간 축적한 HVAC 엔지니어링 역량을 기반으로, 클린룸 중심의 기존 사업 구조에서 통합 에너지 솔루션 기업으로의 전략적 전환을 주도하는 핵심 사업부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수영장, 사우나, 호텔, 골프장 등 대규모 온수 사용 상업시설과 섬유·식품·반도체·제약 등 에너지 집약적 산업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열을 회수·재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대표 설비인 다단 폐수열 회수기 '히트세이버'는 사이펀 원리를 활용한 자정 구조와 국내 유일 로봇 용접기 적용을 통해 기존 판형·셸앤튜브형 열교환기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였으며, 히트펌프·보일러와의 연계 운용 시 높은 에너지 이용 효율을 제공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고객의 초기 투자 부담을 완화하는 ESCO(Energy Service Company) 방식의 사업모델을 KT와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진명스포아트 등 스포츠센터 및 스마트팜 분야로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아울러 2025년 대성에코팜과의 AI 데이터센터 구축사업 업무제휴협약 체결을 통해 발전기 냉각용 열교환기·히트펌프 공급 사업으로 응용 분야를 확장하고 있어, 수영장·스포츠센터 중심의 초기 시장을 넘어 산업 전반의 에너지 절감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HVAC(클린룸) 사업]

HVAC 사업은 동사의 핵심 사업부문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 제약, 화장품, 의료기기, 식음료(F&B) 등 정밀 환경제어가 요구되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 걸쳐 클린룸 설계·시공 실적을 축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설립 초기부터 충남대학교 BSL 3+(미국 CDC 인증) 백신연구소, 싱가포르 국방성(DSO) 차폐 연구실, 싱가포르 PWG Genetics 동물실험실 등 국내외 고난도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고청정 환경 분야의 기술 신뢰도를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2020년 설비분야 엔지니어링 사업자 면허를 공식 취득함으로써 기본 설계부터 상세 설계, 부품 조달, 시공, 시운전, TAB(Testing·Adjusting·Balancing) 측정까지 일괄 수행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공기흐름 시뮬레이션 기반의 최적 설계를 통해 고객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클린룸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최근에는 조직을 바이오·HVAC·에너지 분야로 재편하여 산업별 맞춤형 설계·시공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반도체·바이오 전방 산업의 설비 투자 확대에 따른 신규 클린룸 수주 증가 수혜가 기대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하이브리드 클린 컨테이너(HCC) 제품은 2022년 조달청 혁신제품으로 선정되어 공공 조달 시장 내 안정적인 수주 기반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2026년 4월 삼성전자 파트너사 인증을 획득함에 따라, 삼성전자가 2025년 11월 인수를 완료한 독일 FlaktGroup의 공조장비를 취급할 수 있는 공식 채널을 확보하였으며, 2028년 판매 개시가 예상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삼성전자가 AI 데이터센터·대형 상업시설 대상 중앙공조 시장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적극 육성하고 있는 만큼, 동사는 삼성그룹의 공조사업 확장 과정에서 국내 시공·설치 파트너로서의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동사는 데이터센터 영업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공기질 개선 사업]

공기질 개선 사업(깨공)은 동사가 클린룸 공조 기술을 상가·공공 실내 공간에 응용한 사업으로, 기존 바닥형 공기청정기의 한계를 극복한 천장형 다풍량 공기정화장치를 핵심 제품으로 한다. HEPA 필터 기반의 수직 층류 기류 제어로 비말의 수평적 이동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및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지원과제 수행을 통해 기술적 완성도를 검증하였으며, 현재 사업화를 위한 투자 유치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표 1. 사업 부문

사업부문	품목	주요 사업 내용
에너지 사업	히트세이버, ESCO 사업	- 산업·상업시설 폐수열 회수 시스템 설계·구축 및 에너지 절감 솔루션 제공; KT 협력 ESCO 선투자·분납 모델 운영
HVAC 사업	클린룸(ICR/BCR), HCC, 정밀 공조 시스템	- 반도체·바이오·제약·식음료(F&B) 등 정밀 환경이 요구되는 산업용 클린룸 설계·시공·유지관리 일괄 수행 - 삼성전자 파트너사로서 공조장비 영업 확대
공기질 개선 사업	깨공(천장형 공기정화 시스템), 깨공멤버스	- 상업 매장용 천장형 다풍량 공기정화장치 및 실내공기 인테리어 솔루션 제공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5.12.),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II. 시장 동향

탄소중립·반도체 투자 확대가 이끄는 복합 성장 시장

국내 산업용 HVAC 및 에너지 절감 시장은 반도체·바이오 전방 산업의 설비 투자 확대와 탄소중립 정책에 따른 고효율 설비 전환 수요가 동시에 맞물리며, 글로벌 성장 기조 속에서 AI 데이터센터 냉각·스마트팜 열관리 등 신규 수요처 확대가 동사의 성장 기회를 한층 넓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목표시장 정의

동사의 주 목표시장은 국내 산업용 HVAC(클린룸 포함) 및 에너지 절감(폐수열 회수) 시장으로 정의된다. 매출 구조상 약 99% 이상이 국내 공사용역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주요 고객사는 반도체·바이오·제약·스포츠센터·공공시설 등 국내 산업 및 상업시설로 구성되어 있다.

성장 동력인 에너지 절감 사업의 경우, 현재 국내 시장 중심으로 기반을 구축하면서 히트세이버 해외출원 및 HARFKO·코리아빌드 전시 참가를 통해 글로벌 시장 진출 기반도 단계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 글로벌 클린룸 기술 시장

글로벌 클린룸 기술 시장은 반도체·바이오·제약 산업의 구조적 성장에 힘입어 중장기 안정적 확대가 예상되는 시장이다. Polaris Market Research의 보고서(2024)에 따르면 글로벌 클린룸 기술 시장은 2023년 약 52억 달러(한화 약 7조 원)로 평가되었으며, 2032년까지 약 96억 달러(한화 약 13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해당 기간 연평균 성장률(CAGR)은 7.1%로 분석된다.

특히 세계반도체시장통계기구(WSTS)는 2026년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역사상 최초로 1조 달러 시대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SEMI의 2025년 10월 보고서에 따르면 2026~2028년 3년간 한국에 투자될 300mm 반도체 팹 장치 투자액만 약 860억 달러(약 25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어, 클린룸 시공 수요 증가의 직접적 기반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 글로벌 클린룸 기술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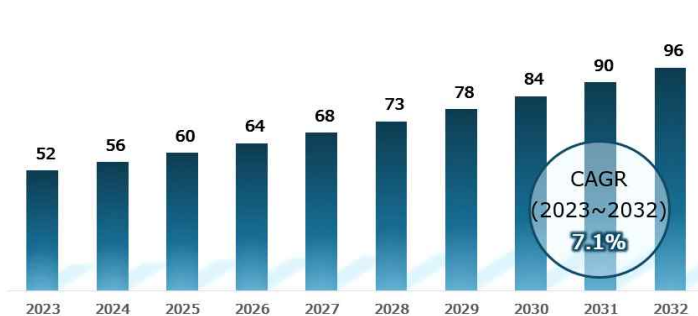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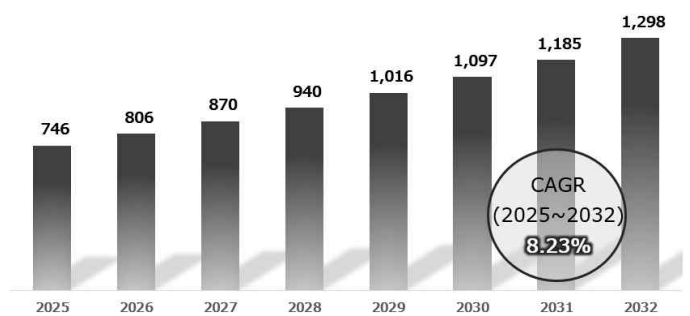


그림 4. 글로벌 폐열 회수 시장

(단위: 억 달러)



출처: Polaris Market Research(2024), Kings Research(2025),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 글로벌 폐열 회수 시장

글로벌 폐열 회수(Waste Heat Recovery) 시장은 탄소중립 정책 강화와 에너지 비용 상승이라는 구조적 요인에 의해 견조한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Kings Research(2025)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폐열 회수 시장은 2025년 약 746억 달러 규모에서 2032년 약 1,298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동기간 연평균 성장률은 약 8.23%로 분석된다.

티엘엔지니어링(413300)

IEA(국제에너지기구)의 「Global Energy Review 2025」는 산업·건물·공정 부문의 에너지 효율 개선이 핵심 성장 영역임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폐수열 회수 기반의 열관리 시스템에 대한 수요 확대와 직결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 시장 구조 및 산업동향

국내 산업용 HVAC 및 에너지 절감 시장은 반도체·바이오 전방 산업의 성장, AI 데이터센터 냉각 수요 급증, 탄소중립 정책 강화라는 세 가지 구조적 요인이 동시에 작동하면서 복합적인 수요 확대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HVAC 분야에서는 기존 단순 공조설비를 넘어 고효율·고정밀 정밀 환경제어 시스템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에너지 절감 분야에서는 기존 설비를 전면 교체하지 않고도 적용 가능한 열 회수 보완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전략」 및 산업부의 에너지 효율 혁신 전략에 따라 산업 부문 고효율 설비 도입 확대가 정책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경제적 절감 효과와 ESG 대응을 동시에 충족하는 폐수열 회수 기반 에너지 솔루션의 수요는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 기술 개발 및 경쟁 환경

국내 산업용 HVAC 및 에너지 절감 사업은 높은 기술 진입 장벽과 프로젝트 단위 맞춤형 설계·시공 방식이 결합된 수주 산업의 특성을 지닌다. 클린룸 분야에서는 정밀 환경제어 설계 역량, 고품질 설비 조달 능력, 안정적인 시공 통합 수행 역량이 핵심 경쟁 요소로 작용하며, 폐수열 회수 분야에서는 기존 열교환기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는 독자적 기술과 현장 실증 레퍼런스가 진입 장벽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Alfa Laval, GEA Group 등 대형 열교환기 전문 기업들이 산업용 폐열 회수 시장에서 광범위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에너지 효율 및 탈탄소화 트렌드에 맞추어 제품 포트폴리오와 기술 혁신을 지속하고 있다.

국내 경쟁 환경에서는 클린룸 엔지니어링 및 HVAC 설비 분야에 다수의 중소 전문 시공업체들이 활동하고 있으나, 설계·조달·시공·유지관리 통합 일괄 수행 역량을 보유한 기업은 제한적이다. 에너지 절감·폐수열 회수 분야는 아직 시장 형성 초기 단계로, 독자 기술과 ESCO 방식의 사업 모델을 갖춘 선도 기업이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게 평가된다.

표 2. 국내 경쟁업체 현황

업체명	사업 현황
한양이엔지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시설용 유틸리티 설비 및 CCSS, 초고순도(UHP) 배관 설비를 전문으로 설계·시공하는 엔지니어링 기업
성도이엔지	반도체·디스플레이·2차전지 등 하이테크 산업의 클린룸 및 플랜트 EPC 전문 기업
신성이엔지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공정용 클린룸 공조 장비(FFU) 및 환경제어 시스템을 제공하는 클린룸 전문 기업

자료: 각 업체 홈페이지 및 보도자료,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III. 기술분석

폐수열 자정(自淨) 회수 기술 및 클린룸 공조 통합 역량

동사는 국내 유일 로봇 용접 기반의 사이펀 자정 구조 폐수열 회수 장치(히트세이버)와 24년간 축적된 산업용 클린룸 공조 기술을 결합하여, 에너지 절감과 정밀 환경제어라는 두 가지 산업 수요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복합 기술 역량을 갖추고 있다.

■ 폐수열 회수 및 에너지 절감 기술

동사의 핵심 기술은 다단 폐수열 회수기 '히트세이버'에 집약된다. 기존 쉘앤튜브형·관형 열교환기는 폐수 내 슬러지에 의한 막힘과 주기적인 세척 필요로 운용 부담이 컸으나, 동사는 사이펀 현상을 이용한 자정(自淨) 구조를 독자 적용하여 전단 여과기 없이도 장기 안정 운전이 가능한 구조를 구현한다.

또한 국내 유일 로봇 용접기로 용접부의 매끄러움과 내구성을 확보하고 전열 면적을 확대하여 열교환 효율을 향상시켰으며, 온수·냉수 라인을 동시에 활용하는 이중 열 회수 구조를 통해 실증 기준 약 80% 수준의 열 회수 성능을 달성한다.

이 기술은 특허 '폐수열 회수 장치(특허 10-2950264)'로 권리화되었으며, 상표 '히트세이버(Heat Saver)'도 확보되어 있다. 히트펌프와의 연계 시 높은 에너지 이용 효율을 발휘하여 고객의 에너지 비용 절감과 탄소 배출 저감을 동시에 실현하며, 투자 회수 기간 약 2~3년의 경제성 있는 사업 모델로 수영장·사우나·스마트팜·데이터센터 등 다양한 수요처에 적용된다.

■ 산업용 HVAC 및 클린룸 공조 기술

동사는 2002년 설립 이래 약 20년 이상 반도체(ICR)·바이오/제약(BCR)·의료·화장품·식품료(F&B) 등 고청정 환경 분야에서 클린룸 설계·시공 역량을 축적하여 왔다. 공기흐름 시뮬레이션(Air Flow Simulation)으로 기류·대기확산·열 분포를 분석하여 FFU(Fan Filter Unit)/EFU(Equipment Filter Unit) 배치 설계를 최적화하고, 이를 토대로 수주에서 설계·시공·시운전·TAB 측정·준공·운영에 이르는 전 과정을 일괄 수행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하이브리드 클린 컨테이너(HCC) 기술은 미세먼지 안심존·음압격리실·바이러스 안심존 3가지 모드를 단일 컨테이너에 구현한 것으로, 특허 '하이브리드 다목적 클린 컨테이너'(특허 10-2272054)로 권리화되었으며 2022년 조달청 혁신제품으로 선정되어 공공 조달 시장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지능형 공기정화 기술

동사는 클린룸 수직 층류 기류 제어 기술을 상업 공간에 응용한 천장형 공기정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천정형 공기정화장치 및 이를 사용한 공기정화시스템'(특허 10-2280707)은 천장 상부에서 수직으로 다풍량의 청정 공기를 공급하고 바닥에서 층류를 형성하여 비말의 수평적 확산을 차단하는 구조로, 기존 바닥형 공기청정기 대비 상업 공간 내 감염병 예방 효과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후 '상업용 실내 공간을 위한 가구 타입의 공기 정화 장치 및 시스템'(특허 10-2751387) 및 '인공지능 공기 정화 제어 시스템이 구비된 천장 매립형 공기 정화 장치'(특허 10-2742615)로 기술을 고도화하여, AI 기반 실시간 공기질 모니터링 및 자동 제어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상용화 준비를 갖추고 있다.

그림 5. 동사 주요 사업



출처: 동사 홈페이지 및 IR자료,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 연구개발 활동

동사의 최근 3개년 연구개발비 추이는 2023년도 약 177백만 원(매출액 대비 1.74%), 2024년도 약 91백만 원(0.66%), 2025년도 약 109백만 원(1.04%)으로, 비율 기준으로는 소폭 등락이 있으나 절대 금액 기준으로는 안정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 3. 최근 3개년 연구개발비

(단위: 억 원)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연구개발비용 계	1.77	0.91	1.09
연구개발비/매출액 비율	1.74%	0.66%	1.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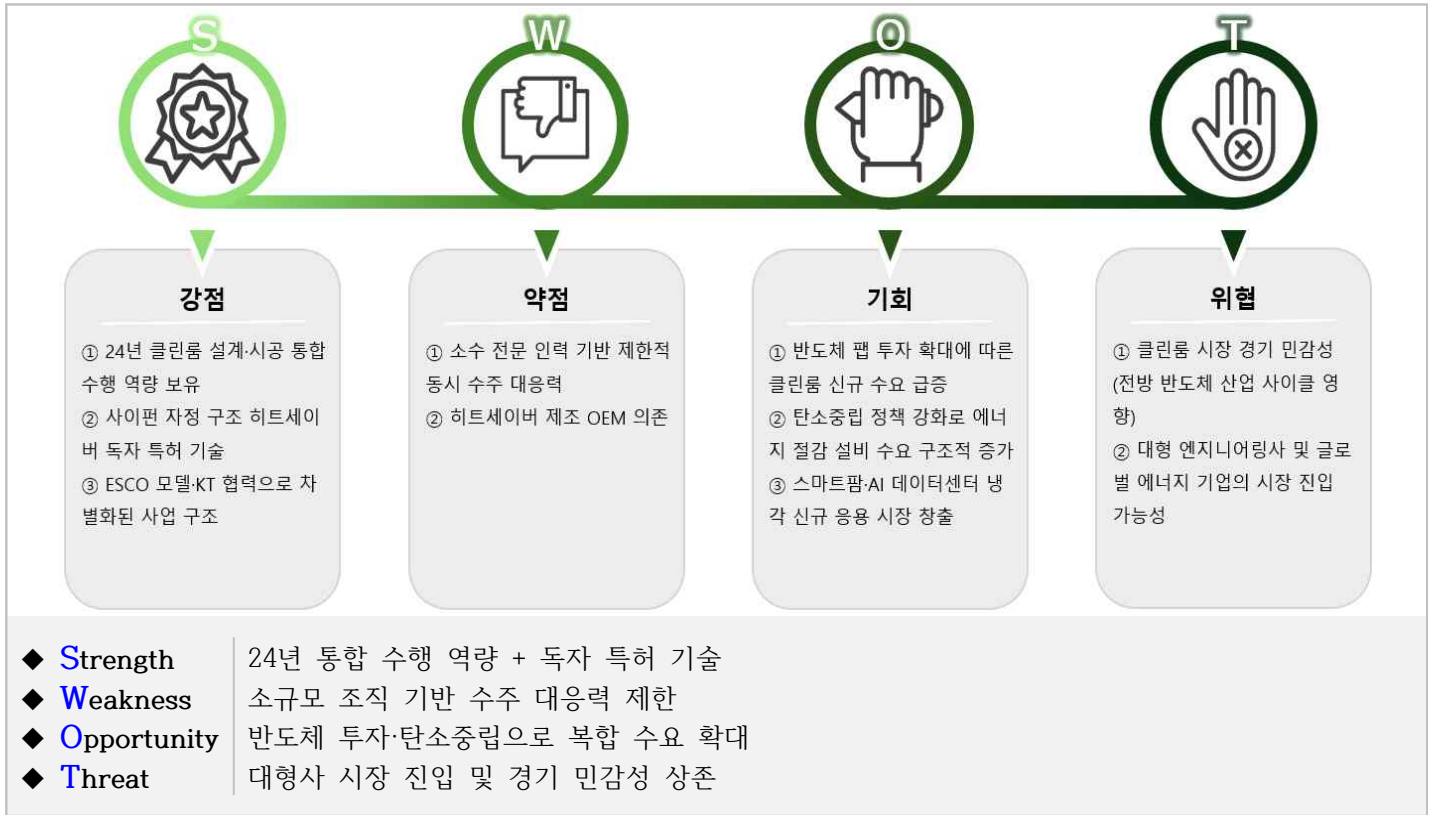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5.12.),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특히 2021년부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주관 HCC 사업화 과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주관 생활혁신형 기술개발사업 과제 등 총 약 6억 원의 정부 출연금을 지원받으며 외부 자원을 통해 R&D 역량을 효율적으로 확충하여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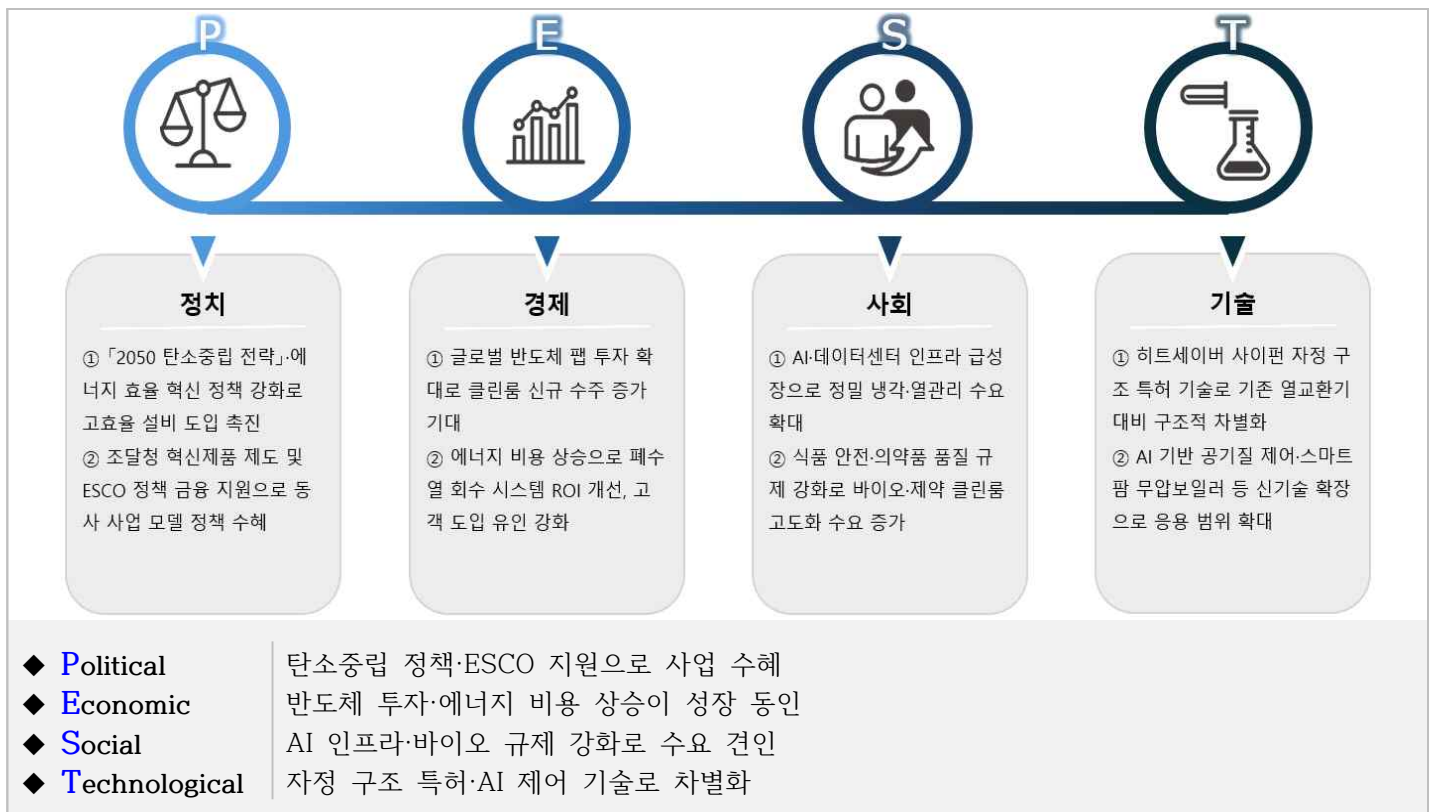
주요 R&D 성과로는 특허 7건(클린룸·공기정화·폐수열 회수 분야), 상표 4건(HCC·개공·히트세이버 등)으로 총 11건의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출원 중 특허 2건(히트쿨러를 이용한 수냉식 냉각 시스템, 스마트팜용 무압보일러 시스템)을 포함하여 총 13건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2026년 장영실상 에너지혁신 부문 수상은 동사의 R&D 역량이 외부에서도 공인된 것으로 평가되며, 현재 녹색기술 인증 추진 및 히트세이버의 유럽·중국·일본·미국 해외 출원을 병행함으로써 기술 권리화와 글로벌 진출 기반을 동시에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SWOT 분석



PEST 분석



IV. 재무분석

HVAC-ESCO 설계 및 공사용역 전문기업, 2025년 흑자전환 성공

동사의 2025년 매출액은 주요 공사 프로젝트 구조 조정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23.4% 축소된 104.6억 원을 기록하였다. 매출원가율이 전년 91.5%에서 83.8%로 7.7%p 개선됨에 따라 영업이익 1.2억 원(영업이익률 1.1%)을 시현하며 2023~2024년 2년 연속 영업손실에서 흑자전환에 성공하였다.

■ 설계 및 공사용역 매출 104.4억 원, 전체 매출의 99.7% 비중의 단일부문 구조

동사는 HVAC(냉난방공조) 및 ESCO(에너지절약전문기업) 분야의 건설공사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반도체·2차전지·바이오 클린룸 설계·시공 등 산업용 공조 엔지니어링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 매출구성은 설계 및 공사용역 부문(99.7%)과 기타매출 부문(0.3%)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설계 및 공사용역이 사실상 전량을 차지하는 단일 부문 중심의 구조이다.

동사의 매출액은 2023년 101.2억 원에서 2024년 136.6억 원(전년 대비 34.9% 증가)으로 ASMK 프로젝트 수주 일시 집중에 따른 반등을 시현한 후, 2025년에는 수주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재편의 영향으로 104.6억 원(23.4% 축소)으로 조정되었다.

■ 매출원가율 7.7%p 개선, 영업이익 1.2억 원 흑자전환

2024년 동사는 매출 136.6억 원, 매출원가 125.0억 원을 나타내어 매출원가율 91.5%의 높은 원가 부담을 기록하였다. 판관비 16.0억 원이 계상되며 영업손실 4.4억 원(영업이익률 -3.2%), 당기순손실 4.5억 원(순이익률 -3.3%)이 발생하였다.

2025년에는 매출 104.6억 원으로 규모가 조정된 가운데, 매출원가를 87.7억 원으로 축소하며 매출원가율이 83.8%로 7.7%p 개선되었다. 이에 따라 매출총이익이 17.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6.3% 확대되었고, 영업이익 1.2억 원(영업이익률 1.1%), 당기순이익 0.8억 원(순이익률 0.8%)을 시현하며 2023~2024년 2년 연속 영업손실 국면에서 흑자전환에 성공하였다. 매출원가율 개선은 고부가 프로젝트 비중 확대와 원가 관리 효율화가 병행된 결과로 판단되며, 향후 원가 효율화 노력이 지속될 경우 안정적인 수익 기반 구축이 기대된다.

그림 6. 동사 손익계산서 분석

(단위: 억 원, %, K-GAAP 개별 기준)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5.12.),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티엘엔지니어링(4133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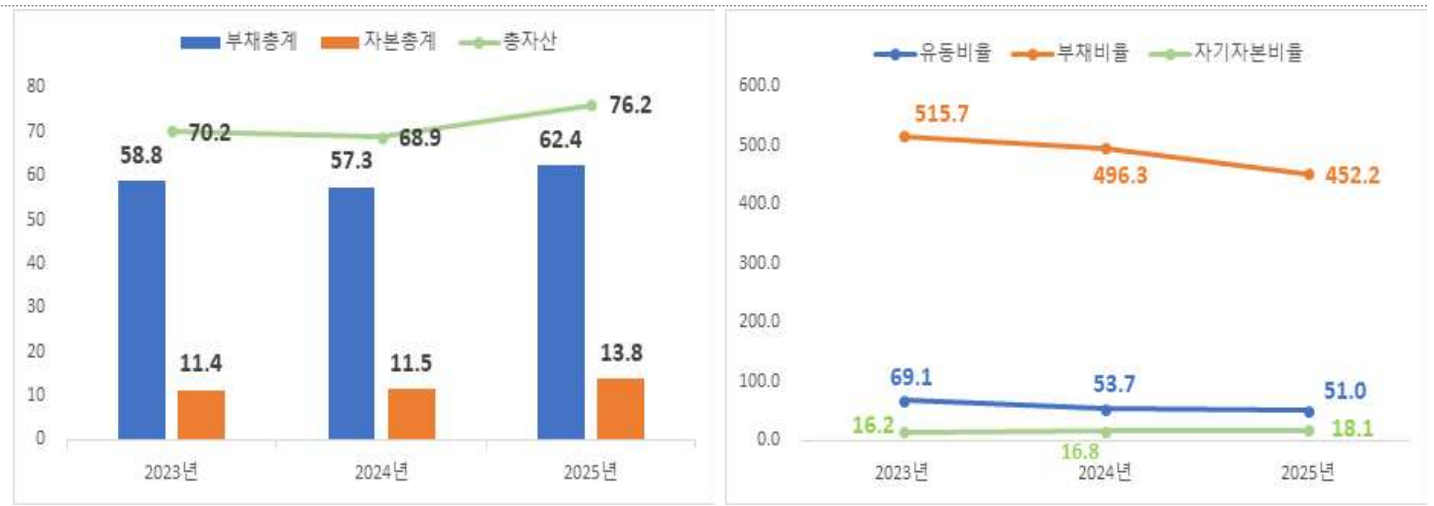
■ 부채비율 452.2%, 자기자본비율 18.1%로 재무구조 점진 개선 흐름

2024년 동사는 총자산이 전년 대비 1.3억 원 축소된 68.9억 원을 기록하였고, 부채총계는 1.5억 원 감소한 57.3억 원, 자본총계는 0.1억 원 증가한 11.5억 원을 나타내었다(유동비율 15.4%p 하락한 53.7%, 부채비율 19.4%p 하락한 496.3%, 자기자본비율 0.6%p 상승한 16.8%).

2025년에는 총자산이 전년 대비 7.3억 원 증가한 76.2억 원을 기록하였고, 부채총계는 5.1억 원 확대된 62.4억 원, 자본총계는 2.3억 원 증가한 13.8억 원을 나타내었다(유동비율 2.7%p 하락한 51.0%, 부채비율 44.1%p 하락한 452.2%, 자기자본비율 1.3%p 상승한 18.1%).

그림 7. 동사 재무상태표 분석

(단위: 억 원, %, K-GAAP 개별 기준)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5.12.),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표 4. 동사 요약 재무제표

(단위: 억 원, %, K-GAAP 개별 기준)

항목	2023년	2024년	2025년
매출액	101.2	136.6	104.6
매출액증가율(%)	-4.8	34.9	-23.4
영업이익	-6.0	-4.4	1.2
영업이익률(%)	-5.9	-3.2	1.1
순이익	-6.4	-4.5	0.8
순이익률(%)	-6.4	-3.3	0.8
부채총계	58.8	57.3	62.4
자본총계	11.4	11.5	13.8
총자산	70.2	68.9	76.2
유동비율(%)	69.1	53.7	51.0
부채비율(%)	515.7	496.3	452.2
자기자본비율(%)	16.2	16.8	18.1
영업현금흐름	-3.6	2.4	-10.3
투자현금흐름	-7.6	-0.2	1.6
재무현금흐름	4.6	-0.5	5.3
기말 현금	1.8	3.6	0.2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5.12.),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 동사 실적 전망

동사는 반도체·AI 인프라 투자 확대로 산업용 클린룸 엔지니어링 수요가 증가하는 국면에 진입하고 있으며, 독일 M+W Zander 출신 핵심인력의 설계·시공 역량을 바탕으로 반도체·2차전지·바이오 클린룸 시장의 구조적 성장 수혜가 전망된다. 경쟁사 신성이엔지의 2026년 수주목표가 7,000억 원 이상으로 제시되는 등 클린룸 엔지니어링 업계 전반의 수주 모멘텀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동사의 동반 수혜 가능성이 부각되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글로벌 ESCO 시장이 2022년 302억 달러에서 2032년 598억 달러로 연평균 7.2%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에너지효율 규제 강화에 따른 냉난방공조(HVAC) 개선 수요 지속이 동사의 중장기 성장 기반을 뒷받침할 것으로 판단된다. 동사는 기존 HVAC·ESCO 건설공사 사업에 더하여 반도체 클린룸 엔지니어링 역량을 확장 적용 중이며, 2025년 흑자전환으로 확보된 수익성 기반을 토대로 향후 반도체 설비투자 사이클 본격화 시 수주 확대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동사의 2026년 매출은 과거 4년 매출 추세를 반영한 보수적 전망 기준 140억 원이 전망된다. 에코팜 및 해외 연관 프로젝트에서 신규 매출 30억 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반도체 클린룸 수주 확대 및 ESCO 시장 성장 수혜가 본격 반영될 경우 상회할 가능성이 있다.

그림 8. 동사 사업부문별 실적 및 전망

(단위: 억 원, %, K-GAAP 개별 기준)

<연도별 실적 및 전망>		<2026년 실적 및 전망>																							
		<table border="1"> <thead> <tr> <th>항목</th> <th>2023</th> <th>2024</th> <th>2025</th> <th>2026E</th> </tr> </thead> <tbody> <tr> <td>매출액</td> <td>101.2</td> <td>136.6</td> <td>104.6</td> <td>140.0</td> </tr> <tr> <td>설계 및 공사용역</td> <td>99.8</td> <td>136.3</td> <td>104.4</td> <td>110.0</td> </tr> <tr> <td>기타매출</td> <td>1.4</td> <td>0.3</td> <td>0.2</td> <td>30.0</td> </tr> </tbody> </table>				항목	2023	2024	2025	2026E	매출액	101.2	136.6	104.6	140.0	설계 및 공사용역	99.8	136.3	104.4	110.0	기타매출	1.4	0.3	0.2	30.0
항목	2023	2024	2025	2026E																					
매출액	101.2	136.6	104.6	140.0																					
설계 및 공사용역	99.8	136.3	104.4	110.0																					
기타매출	1.4	0.3	0.2	30.0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5.12.),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V. 주요 변동사항 및 향후 전망

클린룸에서 에너지 플랫폼으로, 흑자전환 이후 성장 가속 국면 진입

동사는 2025년 영업이익 흑자전환을 기점으로 히트세이버 중심 에너지 절감 사업의 본격 확대, AI 데이터센터·스마트팜 신규 시장 진입, 코스닥 이전 상장 추진이라는 세 가지 성장 동인이 동시에 작동하는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된다.

■ 히트세이버 중심 에너지 절감 사업 본격화 및 실적 반등

동사는 2025년 히트세이버 기반 에너지 절감 사업에서 스마트팜 열교환기 신규 매출을 포함하여 전체 에너지 사업 부문이 전년 대비 큰 폭의 성장을 달성하였으며, 클린룸 중심의 기존 사업 구조에서 통합 에너지 솔루션 기업으로의 전환을 실증적으로 입증하였다. 또한 2025년도(제24기) 연간 영업이익 및 당기 순이익 모두 전기 대비 흑자전환에 성공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는 에너지 절감 사업 매출 확대와 원가 구조 개선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평가된다.

아울러 국내영업 측면에서는 설계사무소 및 산업 플랜트 전문 건설사를 대상으로 설계 단계부터 참여하는 선제적 영업 방식을 강화하는 한편, 기존 고객사 네트워크를 활용한 미국·인도네시아 해외 공장 증설 수주도 추진하고 있어 영업 기반의 다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 AI 데이터센터·스마트팜 등 신규 응용 분야 진입

동사는 2025년 11월 대성에코팜과 AI 데이터센터 구축사업 업무제휴협약을 체결하여 발전기 냉각용 열교환기 및 히트펌프 공급·설치 사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스마트팜 열관리 시스템 분야에서도 실질적인 매출을 발생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폐수열 회수 기술이 기존 수영장·스포츠센터 중심 수요처를 넘어 AI 인프라 및 농업 분야로 확장되고 있음을 시사하며, 향후 고성장 응용 시장을 중심으로 한 사업 다각화 속도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6년 하반기 HARFKO(한국냉난방공조전시회) 및 코리아빌드 참가를 통해 설계사무소 및 건설사 대상 시장 접점을 추가로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기존 고객사 네트워크를 활용한 미국·인도네시아 해외 공장 증설 수주 추진과 필리핀 등 동남아 현지 거래선 확보를 통한 클린룸 부자재 수출 기반 구축을 병행하고 있어, 글로벌 HVAC 시장 참여를 본격화하는 단계에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삼성전자의 FlaktGroup 인수에 따른 국내 공조사업 확대 전략과 맞물려, 동사는 삼성그룹 공조사업 파트너로서 데이터센터·산업시설 공조 프로젝트 수주 접점을 중장기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 기술 권리화·해외 진출 기반 구축 및 코스닥 이전 상장 추진

동사는 2025년 7월 '폐수열 회수 장치' 특허 출원에 이어 2026년 4월 등록을 완료하였으며, 히트세이버 상표의 유럽·중국·일본·미국 해외 출원을 진행함으로써 글로벌 기술 권리화 기반을 갖추어 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026년에는 장영실상 에너지혁신 부문을 수상하였으며, 코넥스 시장 공시우수법인으로도 선정되어 기업 신뢰도를 외부에서 인정받았다.

또한 2026년 4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사업전환' 인증을 획득함에 따라 2027년 말까지 공장 매입(신축) 시 우선 지원 대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코스닥 이전 상장을 목표로 현재 IR 활동 강화 및 외부 투자 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어 성장 자금 확보를 통한 사업 확장 가속화와 기업가치 제고 가능성이 동시에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티엘엔지니어링(413300)

■ 최근 뉴스 및 향후 전망

프롬프트 : 동사의 최근 뉴스와 향후 전망에 대해 알려주세요

생성형 AI 답변 :

“티엘엔지니어링은 24년 클린룸 기술력 위에 독자 개발 히트세이버를 앞세워 에너지 절감·AI 냉각·스마트팜으로 확장하며, 흑자전환 이후 성장 가속과 코스닥 이전 상장이라는 복합 모멘텀을 보유한 에너지 솔루션 전환 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 출처 : Gemini

증권사 투자의견(하단)

작성기관

투자의견

목표주가

작성일

최근 6개월간 발간보고서 없음.

시장정보(주가 및 거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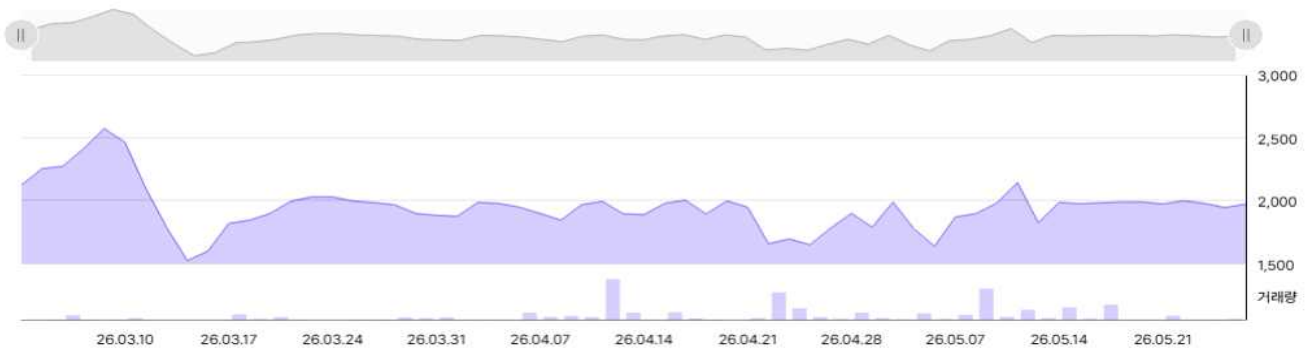
413300 코넥스

단위 : 원, 주, % | 기준 일자 : 2026.05.28

1,973 ▲27 +1.39%

전일 1,946 고가 2,040 거래량 453 주
 시가 2,040 저가 1,671 거래대금 1백만원

1주일 3개월 6개월 1년 3년 5년



자료: NICE Bizline(2026.05.28.)

최근 3개월간 한국거래소 시장경보제도 지정여부

시장경보제도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 또는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종목에 대해 투자자주의 환기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장경보제도는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게 됩니다.

※관련근거: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3조~제3조의7

기업명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티엘엔지니어링	X	X	X